

【논문】

## 객관적 시간 구성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후설의 이론에 기초하여—

김 태 희

【주제분류】 현상학, 인식론, 사회철학

【주요어】 후설, 생활세계 시간, 자연과학 시간, 이념화, 유입

【요약문】 후설의 현상학적 시간의식 분석에서 주관적 시간의식을 토대로 구성된 객관적 시간은 생활세계 시간과 자연과학 시간이라는 두 층위로 구별된다. 생활세계 시간에 대한 이념화를 통해 자연과학 시간이 구성되며, 이렇게 구성된 자연과학 시간은 다시 생활세계로 유입된다. 본고는 이러한 자연과학 시간의 생활세계로의 유입, 나아가 생활세계 시간의 침식을 범례로 하여, 생활세계 이론이 지닌 난점을 해소하고 이 이론의 비판적 의의를 강조한다. 우선 유입 개념에 착목할 때, 현상학적 생활세계 이론에서 나타나는 생활세계의 양의성, 감각적 세계로서의 순수 생활세계와 문화세계로서의 보편 생활세계라는 이중적 규정이 서로 양립 가능성이 드러난다. 나아가 근대 생활세계의 위기가 과학적 세계가 생활세계로 유입하면서 생활세계를 지배하는 현상에서 기인했음을 통찰할 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S1A5B5A07037209]

## I. 서론

본고는 객관적 시간의 두 층위로서의 생활세계 시간과 자연과학 시간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객관적 시간의 문제는 후설의 현상학적 시간의식 분석을 규정하는 결정적 문제이다. 후설은 1905년 이른바 시간강의에서부터 현상학적 시간의식 분석의 궁극적 과제에 대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 속으로의 끊임없는 침전 속에서, 흐르지 않고 절대적으로 고정되고 동일하고 객관적인 시간이 구성된다. 바로 이 문제이다.”(Hua X, 64)<sup>1)</sup>라고 선언한다. 이는 다시 말해 “시간의식에 대해 해명하고,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식이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며, 시간적 객관성, 즉 개체적 객관성 일반이 주관적 시간의식에서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이해”(Hua X, 3)하는 과제이다.

물론 현상학적 시간의식 분석에서 일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객관적 시간에 대한 헐어내기(Abbau)이다. 현상학적 시간의식 분석은 우선 객관적 시간을 헐어내어 주관적 시간의식으로 환원한다. 그런데 초기 시간의식 분석인 시간강의에서부터 나타나는 이러한 방법론으로 인하여, 객관적 시간 자체는 현상학적 시간의식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중대한 오해가 나타난다.<sup>2)</sup> 그러나 현상학적 환원의 의미를 합당하게 이해한다면, 현상학적 연구는 이러한 헐어내기를 통해 명증하게 드러나는 현상에 기초하여 다시 다른 현상들에 대한 쌓어나가기(Aufbau)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일단 판단중지(Epoché)되었던 그 현상들을 새로운 의미로 재발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헐어내기가 이미 구성된 대상(일자)을 실마리(Leitfaden)로 하여 그로부터 구성하는 경험들(다자)로 소급하는 것이라면, 쌓어나가기는 헐어내기를 통해 발견한 구성하는 경험들로부터 다시 구성된 대상으로 초월하는 것

- 
- 1) 본 논문에서 후설전집을 인용할 때는, 인용문 뒤 괄호 안에 후설전집 약호인 Hua를 적고 전집권수와 페이지를 기입한다. 다만 미출간 원고는 후설연구소의 원고분류 방식에 따라 인용한다.
  - 2) 일반적으로 현상학적 환원 개념을 ‘배제(Ausschaltung)’로 해석할 때 이러한 오해가 흔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원을 ‘태도변경(Einstellungsänderung)’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다음을 참조할 것. (이남인, 2009)

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학적 시간의식 분석도 일단 객관적 시간에 대한 혈어내기를 수행하지만 그 다음에는 쌓아나기기를 통해 객관적 시간이 구성되는 방식을 기술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sup>3)</sup>

그런데 주관적 시간의식에 기초한 객관적 시간의 구성 문제가 이처럼 현상학적 시간의식 분석을 규정하는 결정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는 후설 자신에게나 이후 현상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시간강의 이후 10여년간 진행된 후설의 후속 연구들이 주관적 시간의식에 기초한 객관적 시간으로의 쌓아나기기보다는,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주관적 시간의식을 구성하는 초월론적 주관으로의 또 한 번의 혈어내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기 때문이다.<sup>4)</sup> 이에 따라 이후 객관적 시간 구성이라는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났고, 하물며 생활세계 시간과 자연과학 시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체험된 시간”과 “물리학적-수학적 시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시간의식 분석에서 지니는 중대한 함의를 정당하게 지적하는 연구자도 있다.<sup>5)</sup> 이 경우에 이는 주관적 시간(체험된 시간)과 객관적 시간(물리학적-수학적 시간) 사이의 관계라는 문제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본고에서는 객관적 시간을 다시 생활세계 시간과 자연과학적 시간으로 구별하고 이 두 시간 사이의 관계를 주목할 때 객관적 시간 구성 문제가 완전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본고는 현상학적 시간의식 분석에서 객관적 시간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특히 객관적 시간의 두 층위인 생활세계 시간과 자연과학 시간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때 양자의 관계를 주제화하기 위해서는 생활세계와 과

3) 초월론적 현상학은 “현실적 세계와 자연의 실정적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며”, 그 “유일한 임무와 공헌은 이 세계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수용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Husserl, 1971, p.14)

4) 시간의식 분석에서 이처럼 시간을 구성하는 근원적 주관성, 즉 절대의식(absolutes Bewußtsein)으로의 환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고전적 연구를 참조할 것. (Brough, 1972) 후설의 절대의식 이론을 둘러싼 현상학 연구자들의 오랜 논쟁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태희, 2010)

5) Alves, 2008, p.211

학적 세계 사이의 관계에 있어 핵심적 개념인 이념화(Idealisierung)와 유입(Einströmen)을 살펴보아야 한다. 생활세계에 대한 이념화를 통해 과학적 세계가 나타나며 이러한 과학적 세계는 거꾸로 생활세계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활세계의 이념화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수의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졌지만, 과학적 세계가 생활세계로 흘러들어오는 유입의 현상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다.

국내에서는 유입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는 연구에는 박인철(2003)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기술이 생활세계로 유입하는 현상을 범례로 하면서, 후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 낙관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해석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해석에 기초해, 하이데거가 생활세계와 기술의 본질적 부조화를 드러냄을 통해 후설의 기술 이해가 지닌 근본적 난점을 현상학적으로 보완 발전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후설의 생활세계 이론에서 과학적 세계의 생활세계로의 유입이라는 개념이 지닌 비판적 관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처럼 생활세계 이론에 대한 수용사에서 유입의 현상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기 때문에, 생활세계 개념이 지니는 난점과 역설들이 극복될 수 없었다. 또한 그 결과 이 이론에 대한 해석에 있어 중대한 오해, 즉 이념화의 결과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이른바 순수 생활세계가 구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오해가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는 유입 개념에 대해 주목할 때,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생활세계는 이러한 유입들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없음을, 즉 이미 과학적 세계에 의해 침식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본고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두 가지 테제를 주장할 것이다. 첫째, 현상학적 ‘시간의식 분석’의 맥락에서 객관적 시간 구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객관적 시간의 두 층위인 생활세계 시간과 자연과학 시간을 구별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에 착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현상학적 ‘생활세계 분석’의 맥락에서 특히 유입 개념에 주목할 때 생활세계 개념이 지니고 있는 난점들을 극복하고 생활세계 이론이 지닌 비판적 함의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학적 세계의 유입에 대한 범례로서 자연과학 시간의 유입 현상을 고찰할 때, 당대의 위

기에 대응하기 위해 태동한 후설의 생활세계 이론이 지니는 비판적 의의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 본고에서는 주관적 시간의식에 기초한 생활세계 시간 구성(II장), 생활세계 시간의 이념화를 통한 자연과학 시간 구성(III장), 자연과학 시간의 생활세계로의 유입(IV장)을 살펴볼 것이다.

## II. 생활세계 시간 구성

현상학적 시간의식 분석은 우선 객관적 시간에 대한 헐어내기를 통해 주관적 시간의식으로 돌아간다. 이때 우리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학적인 소여들”은 “그러한 체험 안에서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적인 것이 나타나는 시간과악들(Zeitauffassungen)이다.”(Hua X, 6) 그런데 이러한 시간과악들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체험들, 즉 “시간의 근원”(Hua X, 10)은 다름 아닌 근원인상(Urimpression), 파지(Retention), 예지(Potentia)라는 “시간적인 것의 원초적 차이들(die primitiven Differenzen des Zeitlichen)”(Hua X, 9)이다. 이 원초적 차이들은 “시간에 관련된 모든 명증의 원천으로서 직관적으로 그리고 고유하게 구성”(Hua X, 9)되므로, “경험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본래적 경험, 즉 직관적이며 최종적으로 충전적인 경험”(Hua X, 9)이다. 이처럼 원초적인 시간적 차이들이라는 가장 단순하고 명증한 사태로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우리는 이러한 차이들로부터 보다 복잡적이고 덜 명증한 주관적 시간 체험들, 가령 재기억(Wiedererinnerung), 기대(Erwartung), 상상(Phantasie) 등이 어떻게 정초되는지를 고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근원인상, 파지, 예지만으로는 객관적 시간은 고사하고 주관적 시간이 지닌 시간적 질서조차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주관적 시간은 “자연이라는 형식, 즉 물리적이고 심리물리적인 자연이라는 형식의 의미에서 객관적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월론적 객관성의 형식”을 지니며 이런 의미에서 “최초의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시간 형식”이다(Hua XXXIII, 184). 따라서 “현상학적 시간도 시간이며, 현상학적 과정들, 이 시

간 안의 체험들로서의 체험들은 어떤 객관성을 가진다.”(Hua XXXIII, 184) 그러므로 근원인상, 파지, 예지에 기초하여 “하나의 통일적이고 동질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에 대한 의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혹은 과정이 시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파지를 통해 밀려나면서 절대적 시간 값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Hua X, 69).<sup>6)</sup> 어떤 시간 질서를 지닌 주관적 시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내적 시간대상들이 그때그때 상이한 시간 위치들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동일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sup>7)</sup> 그런데 이처럼 주관적 시간 안에서 내적 시간대상이 지니는 동일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파지-근원인상-예지라는 근원적 시간적 변양들의 연속체만으로는 부족하다. 내적 시간대상의 동일성을 완전히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간 작용들을 재생산함을 통해 그 대상을 다시 기억하여 동일화할 수 있으며, 그것도 이러한 동일화를 임의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 재생산되는 작용들 및 기억되는 대상들이 우리가 그 이전에 이미 수행했던 작용들 및 지각했던 대상들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성이 필요하다(Hua XI, 144). 다시 말해, “나는 ‘언제라도’ 동일한 ‘그것이다.’를 확신”(Hua X, 109)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파지-근원인상-예지라는 근원적 시간변양에 기초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시간 체험들, 즉 재기억과 기대 등을 통하여 이른바 주관적 시간을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주관적 시간은 이미 어떤 객관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

6) 여기에서 우리는 디머에 따라 “‘주관적’인 객관적 시간”과 “‘객관적’인 객관적 시간”을 구별할 수 있다. 전자가 개별 주관의 내적 시간이라면, 후자는 다시 자연과학 시간과 상호주관적 시간, 즉 생활세계 시간으로 구별된다(Diemer, 1965, p.170). 이처럼 “‘주관적’인 객관적 시간”이라는 표현은 어색하기는 하지만, 개체적 주관의 시간의식, 즉 주관적 시간 자체가 이미 어떤 객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지시한다. 주관적 시간도 이미 어떤 의미로는 “연장되어 있고 연속적이며 질서를 지니기” 때문이다.(Lohmar, 2010, p.118)

7) 내적 시간대상은 주관적 시간의식 안에서 동일성을 지니고 나타나는 대상을 의미하는데, 후설에 따르면 내적 시간대상, 혹은 “내적 내용들”은 “감각소여들, 가령 붉음, 푸름 등이고, 더 나아가 현출들(집 현출, 환경 현출 등)이다. [...] 그 다음에 진술함, 기원함, 의욕함 등의 ‘작용들’과 그와 관련된 재생산적 변양들(상상들, 기억들)이 있다.”(Hua X, 83 이하) 현출이 결국 감각소여들의 다양체임을 고려한다면, 내적 시간대상은 감각소여와 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불구하고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객관적 시간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객관적 시간은 개별 주관의 시간의식을 초월하여 상호주관적으로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객관적 시간은 우리 모두에 대해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시간이다. 주관적 시간은 각 개별 주관의 지각이나 기억 등의 작용과 긴밀히 얽혀있는데 비해, 객관적 시간은 내게 직접 주어질 수 없는 시간 위상들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완전한 의미에서의 객관적 시간은 가령 내가 잠을 자는 시간이나 내가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이후의 시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sup>8)</sup>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객관적 시간, 즉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시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구성된다. 『경험과 판단』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주관적 시간 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타인이 내게 자신의 과거 체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기억들을 전달” 하면, “그 기억들을 통해 기억된 것은, 나와 우리가 공동으로 체험하는 현재 안에서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객관적 세계에 속한다.” 그리하여 “이 모든 상이한 기억된 환경세계(Umwelt)들은 하나의 동일한 객관적 세계의 부분들”이다. 이를 통해 이 부분들, 즉 개별적 환경세계들은 전체 객관적 세계 속에서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원본적으로 감각을 통해 지각하는 것, 내가 지각했던 것, 내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타인들이 그들이 지각하거나 기억한 것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하나의 세계 안에서 각각 위치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러한 “객관적 세계 안에서 자신의 고정된 시간위치, 객관적 시간 안에서의 위치”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통일성”을 가지게 된다.<sup>9)</sup>

이처럼 의사소통에 의해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는 최초의 객관적 시간은 곧 “단적인 상호주관적 경험들의 세계”(Hua VI, 136)로서의 생활세계

8) 이런 의미에서 출생, (꿈 없는) 잠, 죽음과 같은 한계사건(Grenzfall)은 초월론적 자아의 유한성을 구성하며 이러한 초월론적 자아의 유한성은 바로 객관적 시간의 상호주관적 구성을 위한 초월론적 조건이 된다. 후설의 한계사건 분석이 지닌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태희, 2011)

9) Husserl, 1972, p.188 이하

시간이며, 이러한 객관적 시간의 의미는 주관적-내재적 시간성을 넘어서는 근본적 ‘잉여’를 가진다. 이처럼 개별 주관들의 시간의식에 기초하여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는 “생활세계 시간(Zeit der Lebenswelt)”은 “흐름 안에서 살아서 현전하는 세계의 시간”이며 “우리에 대해 존재하는 사물들의 형식으로서의 시간”(Hua XXXIX, 575)이다. 초월론적 주관들의 공동체 내에서는 일차적으로 “우리는 함께-현재함”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초월론적 자아들의 근원적 관계는 상호주관적인 생활세계 시간 안에서 명증하게 드러난다. “순수한 모나드적(현상학적) 경험(자기 경험과 타인 경험)을 확인”할 때 “모든 모나드는 그 자신에게 있어 그리고 그 자신 안에서 다른 모나드들에 존재적으로 관련된다. 서로에 대해 존재함이라는 이러한 존재의 근본 관계는 명증하게, 상호주관적 시간 안에서의 공존 관계이다.”(Hua XIV, 360)

지금까지 우리는 객관적 시간의 혈어내기와 주관적 시간의식으로서의 환원을 통해 파지-근원인상-예지라는 “시간의 근원”에 도달한 후, 이에 기초하여 다시 쌓아나가기들 통해 주관적 시간 구성과 나아가 최초의 객관적 시간, 즉 생활세계 시간 구성이 이루어짐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생활세계 시간에 대한 이념화를 통한 자연과학 시간 구성에 대해 살펴보자.

### Ⅲ. 자연과학 시간 구성

#### 1. 이념화

후설 현상학에서 1920년대부터 사용되고 1936년 출간된 『위기』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생활세계 개념은 후설이 통찰한 당대 서구 문명의 위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타났다. 후설의 진단에 따르면, 이러한 서구 문명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학문들의 위기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학문들의 위기는 바로 근대 학문들이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경험세계가 자신의 근원임을 망



각했기 때문에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생활세계 개념은 후설의 현상학 중에서도 이후의 철학 및 여타 학문들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개념 중 하나이다. 생활세계 사상이 이처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보다도 독사(Doxa)와 에피스테메(Episteme) 사이의, 서양 철학사에서 고전적인 위계에서 벗어나 일상적 의식으로서의 독사를 복권시켰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이래로 일상적 의식으로서의 독사는 에피스테메에 비해 경멸을 받아왔다. 생활세계의 인식은 “단지(bloß)” 주관적-상대적이라고 말할 때, 이는 “독사가 지닌 경멸적 색조”라는 “오랜 유산”을 보여준다(Hua VI, 127).<sup>10)</sup> 그러나 후설의 생활세계 사상은 일상적 의식이야말로 과학적 인식의 “명증의 원천(Evidenzquelle)”이자 “입증의 원천(Bewährungsquelle)”(Hua VI, 129)임을 보여주었다. 생활세계는 직접적 직관에 구속되는 “감각적 직관의 세계”(Hua VI, 108)이자 “과학 이전이자 과학 바깥의 삶(vor-und außerwissenschaftliches Leben)”(Hua VI, 127)의 실천적 세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며 정확하지 않은 인식이지만, 직관에 의한 인식이므로 과학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의 타당성을 정초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실천적 삶의 영역인 생활세계는 “근원적 명증들의 영역”(Hua VI, 130)이며, 더 나아가 발생의 정초 관점에서 과학의 세계를 정초한다.<sup>11)</sup> 이제 우리는 이처럼 생활세계에 기초하여 과학의 세계가 발생하는 사태를 해명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개념인 이념화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이러한 과학의 세계 이전이자 외부의 세계로서 실천적 삶의 세계인 생활세계에서는 사물들에 대한 인식은 “대략적이고 유형적으로(im Ungefähren, Typischen)”(Hua VI, 29)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직관적인 환경세계의 사물들”은 “단지 유형적인 것의 동요 안에서”(Hua VI, 22) 주어지는데, 이러한 유형이 지니는 정확성은 한계를 지니

10) 현상학에서 독사와 에피스테메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 연구들을 참조할 것. (Waldenfels, 1982; Biemel, 1979)

11)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정초’ 개념의 상이한 관점, 즉 타당성 정초와 발생의 정초의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구성’ 개념의 상이한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이남인, 1992, p.267 이하)

지만, 일상적 경험에서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문제시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sup>12)</sup>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대개 특정한 실천적 관심에 의해 인도되므로, “특수하고 실천적인 관심이 이때 바로 완전히 만족”(Hua VI, 22) 되기만 한다면 이러한 “대략적이고 유형적”인 인식 이상을 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실천적 관심에 기초한 “현실적 실천 대신에”, 이론적 관심에 기초한 “순수 사유의 이념적 실천”(Hua VI, 23)을 수행하게 되면, 이러한 일상적 삶에서의 정확성을 뛰어넘는 이론적 차원의 완전한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완전화(Vervollkommnung)의 요구로부터 바로 이념화가 나타난다. 이념화는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삶 안에서의 완전화 추구를 넘어서서 이러한 추구를 무한에 이르기까지 계속한다. 물론 이러한 무한한 완전화 자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념화는 이를 가정하면서 이를 통해 “불변하고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극들”인 “극한-형상들”(Hua VI, 22)을 획득하는데, 이러한 “‘순수한’ 형상들의 보편적 형식은 이들과 더불어 이념화된 공간시간이라는 형식(Raumzeitform)”(Hua VI, 22)이다.

이러한 이념화의 방법은 고대에 나타난 기하학에서 이미 나타나지만 근대에 이르러 수학과 결부되면서 결정적 도약을 이룩한다. 이념화의 기초가 되는 무한성의 사유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학적 이념화”(Hua XXIX, 149)는 역사적으로 보아 갈릴레이에 의해 완성된다. 갈릴레이는 세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수학화가 가능하다는 가설을 통해 근대 과학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갈릴레이의 자연의 수학화(Mathematisierung der Natur) 안에서 이제 자연 자체가 새로운 수학의 지도 아래 이념화되고, 근대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자체가 하나의 수학적 다양체가 된다.”(Hua VI, 20). 이제 세계는 직접적이고 직관적 경험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세계는 이러한 직관

12) 후설의 현상학에서 “유형(Typus)”은 “전통적인 종(Art 개념)”과의 대조 하에서 나타난다. 어떤 대상은 특정 종 개념이 지닌 특성들에 합치하는 성질들을 보여줄 때 이 종 아래 포섭된다. 이에 비해 어떤 대상은 특정 유형의 대표적인(“유형적인(typisch)”) 사례들로 간주되는 대상들과의 유사성을 보여줄 때 이 유형 아래 포섭된다(Gander, 2010, p.287).

적 세계의 배후에 놓여있으며 수학적 공식을 통해 정밀한 양적 파악이 가능한 세계로 규정된다. 이러한 완벽한 이념화, 즉 수학적 이념화를 통해 이러한 과학적 세계는 그 발생의 토대이자 타당성의 토대인 생활세계로부터 분리되어 그 자체의 객관성과 확실성을 담보할 뿐 아니라 이러한 생활세계의 타당성의 토대로 자처하게 된다. 이처럼 이념화는 근대 자연과학의 세계관과 방법론의 바탕을 이룰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근대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세계관이자 방법론으로까지 승격된다.

후설이 진단하는 서구문명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근대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러한 방법론이 생활세계로 침투하고 생활세계의 경험이지니는 직관적 타당성을 침식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본래 “현실적으로 공동의 현재”, 즉 “가까운 세계(Nahwelt)”(Hua XXXIX, 712)로서의 생활세계가 “이념의 옷(Idennkleid)”(Hua VI, 51)을 걸친 채 왜곡되어 나타나면 “생활세계가 의미의 토대임을 망각”(Hua VI, 48)함에 따라 “수학적 자연과학의 의미 공동화(空洞化)”(Hua VI, 45)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 2. 자연과학 시간의 구성

우리는 생활세계에 대한 이념화의 결과 과학적 세계가 발생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념화 과정은 생활세계 시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제 “시간의 이념화”(Hua XXIX, 142)를 통해 자연과학의 시간화가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활세계가 지닌 시간성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생활세계 시간은 우선 밤낮과 계절 등의 자연적 리듬과 이에 따라 노동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일상세계의 실천적 시간이다.<sup>13)</sup> 이러한 생활세

13) 슈츠는 이러한 생활세계 시간의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생활세계 시간의 구조는, (내적으로 지속하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주관적 시간이 ‘생물학적 시간’ 일반으로서의 신체의 리듬과 교차하고, 세계 시간 일반으로서의, 혹은 달력이나 ‘사회적 시간’으로서의 계절과 교차하는 곳 위에 구축된다. 우리는 동시적으로 이 모든 차원들 안에서 살아간다.” (Schutz, 1973, p.47)

계 시간에서는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에서 시간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핵심적인 정밀한 객관적 시간의 정밀한 측정과 무한성이라는 이념화된 측면, 즉 “수학적 시간”(Hua VI, 50)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수학적 실천 속에서 경험적 실천에서는 가능치 않은 것, 즉 ‘정밀성(Exaktheit)’에 도달”(Hua VI, 24)하며, “논리화-수학화된 무한성”으로서의 “자연의 무한성”은 바로 이러한 “정밀한 자연과학의 주제”이다(Hua Mat VIII, 393).

그러므로 수학적 이념화 이전의 “생활세계의 무규정적으로 일반적인 형식으로서의 공간과 시간”에서는 이념적인 “극한-형상들”이 아니라, “경험적-직관적 형상들의 다양체”가 존재한다(Hua VI, 30). 이처럼 “세계를 모든 과학 이전에 의식에 있어 선소여되는 방식 안에서 순수하게 고찰”할 때 “이 세계의 유형적 구조”를 이루는 생활세계 시간은 “직관적으로 선소여하는 사물들의 총체에 대한 직관적인 통일 형식”이다(Hua XXXII, 18).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세계 시간으로부터 “수학적 시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직관적인 자연과 세계”로부터 만들어진 이러한 “수학적 세계, 수학적 자연과학들의 세계”(Hua VI, 341)는 “시간의 이념화”를 통해 나타나는 수학적 자연과학의 시간을 지닌다. 생활세계에서의 매순간의 직관적 시간 경험을 넘어서는 수학적 이념화를 통해 고정된 시간위치들의 직선적 계열들이라는 객관적 시간이 나타난다. 이처럼 수학적 이념화에 의해 성립하는 자연과학 시간은 양화 가능성, 나아가 정밀한 측정 가능성과 무한성이라는 이념을 지니는데, 이러한 이념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아 근대 자연과학의 시초에 일어난 “이념화”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시간에 대한 이러한 자연과학의 이해는 “객관적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이해의 특수한 발전”<sup>14)</sup>이며, 따라서 생활세계 시간과 자연과학 시간은 객관적 시간의 두 양태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활세계 시간에 기초한 이념화를 통해 자연과학 시간이 구성된다는 관점에서는 양자를 객관적 시간의 두 층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학에 기초한 자연과학 시간이 지닌 중요한 특성은 동질성,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질적 차이가 무화된다는 사실이다. 생활세계는 본래

14) Lohmar, 2010, p.133.

“친숙한 유형의 환경세계(Umwelt)”(Hua Mat VIII, 400)이며, 이 환경세계로서의 세계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자신의 불변의 공간시간적 형식을 유지”(Hua Mat VIII, 1)한다. 인간의 본래적인 시간 체험으로서의 이러한 생활세계의 시간의 형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재를 지니고 그 현재 안에서 미래가 과거가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세계의 시간 경험에서 핵심은 현재를 기점으로 분리되는 과거와 미래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는 이미 결정되고 있고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의 계열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나 수학은 “시간의 이념화”를 통해 “고정되고 운동과 변화를 겪지 않는 물체들의 시간”을 형성하고, “무한하게 사유를 수행하면서” “이념화를 통해” 시간을 “분해하고 결합”한다(Hua XXIV, 142). 그러므로 수학적 자연과학의 시간은 현재에 배당된 어떠한 의미도 허용하지 않으며, 미래와 과거,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라는 은유에도 어떠한 의미도 허용하지 않는다.<sup>15)</sup> 따라서 “객관적 시간, 곧 시간점들 ‘그 자체’의 연속체라는 표제 하에서는 현재라는 양상과 과거들의 연속체라는 양상 사이의 차이가 완전히 사라진다.”(Hua XXXIII, 294) “직관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무수한 이념화들의 결과”로 구성되는 이러한 객관적 시간에 있어서는 “시간점들의 동질화”로 인해 이러한 시간점들은 절대적 정향점으로서의 고정된 ‘지금’에 상관적이지 않다. 이처럼 ‘지금’이라는 준거점이 없는 “점들의 동질적 계열로서의 시간 구성은 곧 ‘시간 현상의 공간화’에 다름 아니다.<sup>16)</sup> 이처럼 이른바 시계 시간에 있어서는 “시간의 지금점이 다른 점들로부터 두드러지지 않으며”, 따라서 시계의 시간은 “수미일관하게 동형적, 동질적”인데, 이처럼 “시간이 동질적 시간으로 구성될 때에만 시간은 측정 가능하다.”<sup>17)</sup>

따라서 이러한 동질적 시간으로서의 자연과학의 시간은 공간화된 시간이며 공간과 마찬가지로 양화가 가능하고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시간이다. 이러한 자연과학의 시간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구분되지 않는다. 객관적

15) Fraser, 1992, p.159.

16) Alves, 2008, p.221.

17) Heidegger, 1989, p.4.

“시간은 형식의 연속체인데 우리는 그 형식을 직선적 다양체라고 부르고, 순수하게 개념적으로, 그것도 순수하게 범주적으로 규정”(Hua XXI, 390)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공간 안의 직선에도 성립한다. 그렇다면 시간의 직선적 다양체와 공간의 직선적 다양체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차이는 “이론 바 질료적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러한 질료적 요소들은 공간 안의 직선에서는 “공간적 점들”이라면 시간 안의 ‘직선’에서는 “시간적 점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점들과 시간적 점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지 ‘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Hua XXI, 390). “수학, 나아가 수학적 물리학은 추상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Hua XXIX, 143)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순수한 생활세계, 선학문적 의미에서 실재적인 생활세계의 공간시간성(Raumzeitlichkeit)”과 구별되는, 추상화된 “공간시간성(동시성과 연속성으로서의 시간성)”(Hua VI, 220) 개념이 나타난다.

#### IV. 자연과학 시간의 생활세계로의 유입

##### 1. 유입

이제까지 우리는 생활세계에 대한 이념화의 결과 과학적 세계가 발생함을 서술했다. 그러나 이념화를 통한 과학적 세계의 등장 자체가 근대 학문의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생활세계가 “이념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현상이 근대 학문이 자신의 의미 근거로서의 생활세계를 망각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위기를 불러온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는 과학적 세계가 생활세계로 흘러들어오고 나아가 생활세계를 지배하는 현상을 통해 일어난다. 그러므로 생활세계의 망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입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유입은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특수 태도들 안에서 획득된 인식들을 통해, 생활세계의 의미내용들이 확장되는 현상”<sup>18)</sup>을 지칭한다. 이념화를 통

해 획득한 객관적 과학의 인식들은 생활세계에서, 즉 “현실적 경험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실천 내에서 소급 활용(Rückverwertung)” (Hua VI, 224)된다. 이처럼 이론적 인식들이 일상적 직관의 세계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현상은 무엇보다도 기술이라는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sup>19)</sup> 예를 들어 우리는 가전제품을 작동시킬 때 이 대상들의 자연과학적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를 주제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념화 단계들을 통해 획득된 모든 인식들은 우리의 실천 가능성들의 심층에 비주체적으로 이미 침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념화, 특히 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이념화의 단계들에 있어 획득된 모든 것들은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기술의 활용을 통해 비과학적 실천의 직관적 지평들, 즉 생활세계로 흘러들어와 생활세계의 구성요소가 된다.<sup>20)</sup>

우리가 이러한 유입 개념에 주목할 경우, 생활세계 개념이 지닌 양의성을 해소할 가능성을 얻는다. 후설의 이론 내에서 생활세계 개념은 한편으로는 선과학적인 ‘직관의 세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과 기술의 성과까지 포함하는 ‘문화의 세계’라는 이중적 정의를 얻는다.<sup>21)</sup> 이러한 생활세계의 양의성은 두 가지 관점의 차이, 즉 생활세계에서 과학적 세계의 유입 현상을 배제하는 관점(“순수 생활세계”)과 이러한 유입 현상을 포함하는 관점(“보편 생활세계”)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관상의 양의성을 해소하고 양자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경우, 근대 학문의

18) Gander (2010), p.81 이하. 이를 유입, 즉 “흘러들어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개별적인 초월론적 주관의 의식 흐름들이 상호주관적으로 구성하는 세계의식, 그리고 그에 상관적인 생활세계 자체가 하나의 “헤라클레이토스적 흐름”(Hua VI, 159)이기 때문이다. 한편 “유입”의 이러한 일반적 의미 안에서 “이론적인 특수 태도들”은 비단 과학적 태도 뿐 아니라 초월론적 태도일 수도 있다. 이러한 후자의 의미에서의 유입 개념은 초월론적 태도를 통해 획득된 인식이 자연적 태도 속에 침전되는 현상을 지시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Hua VI, 212-214; Hua XXIX, 77-83을 참조할 것.

19) 가령 수학은 “측정술(Meßkunst)”과 결합하여, “이념성들의 세계로부터 경험적이고 직관적인 세계로 다시 내려오면서”,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세계의 사물들”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양식의 객관적으로 현실적인 인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Hua VI, 30).

20) Held, 1991, p.106 이하

21)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가령 다음 연구들을 참조하라. (Carr, 1970; Claesges, 1971)

위기를 불러온 생활세계의 망각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극복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후 서술하겠지만, 생활세계의 망각은 결국 보편 생활세계 내에 포함된 두 세계, 즉 순수 생활세계와 과학적 세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수립함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구도를 염두에 두고, 후설에게서 생활세계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앞서 논의한 것처럼, 생활세계 개념은 먼저 직관의 세계라는 근본적 의미 안에서 과학의 비직관적 세계에 대한 대조(Kontrast)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생활세계는 “과학 이전이고 과학 외부의, 감각적 직관의 세계”로서 과학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의 타당성을 정초한다. 그러나 직관을 초월하는 실천의 성과들, 특히 수학적 이념화에 기초한 근대의 과학적 연구와 기술적 실천의 성과들이 이제 생활세계의 직관적 지평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객관적 과학 안에서 우리는 “순수 생활세계(reine Lebenswelt)를 넘어선다.”(Hua VI, 142) 그러나 이러한 순수 생활세계는, 과학 및 기술의 성과들을 포함한 모든 문화적 형성물들이 이미 유입된 생활세계, “그 총체적이고 완전한 구체성”(Hua VI, 134) 안에서 취해진 “보편 생활세계(universale Lebenswelt)”(Hua VI, 141)의 일부일 뿐이다. 보편 생활세계는 “모든 수행들이 그리로 흘러들어오고(einströmen) 모든 인간과 수행하는 작용과 능력이 계속 거기 속하는 생활세계의 보편적 틀”(Hua VI, 141)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입을 통해 생활세계는 이제 단지 직관적 경험에 묶인 선과학적이고 과학 외적인 실천을 위한 지평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직관을 초월하는 과학적 실천을 위한 보편적 지평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구체적 보편성”(Hua VI, 136)을 지니는 보편 생활세계는 인간의 모든 실천의 보편적 지평이다.

그러므로 생활세계와 과학적 세계는 서로 상이한 세계이지만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 물론 이러한 관계에 대한 사유는 우리를 “불편한 상황”(Hua VI, 133) 혹은 “괴로운 난점들”(Hua VI, 134)에 몰아넣는다. 한편으로는 “객관적-과학적 세계의 지식은 생활세계의 명증 안에 ‘정초’되지만, 다른 한편, ‘과학 전체가 (단지 ‘주관적-상대적인’) 생활세계 안으로 들어온다.”(Hua VI, 133) 이처럼 생활세계와 과학적 세계가 한편으로는



“대조”를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풀리지 않는 합치”를 이룬다는 “역설적 상호관계”(Hua VI, 134)가 곧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생활세계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존재 방식”(Hua VI, 134)이다.<sup>22)</sup> 그러나 우리가 생활세계의 이른바 양의성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유입을 배제하는 관점인 “순수 생활세계” 개념과 유입을 포함하는 관점인 “보편 생활세계” 개념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자의 존재 방식”이 지니는 “수수께끼”(Hua VI, 134)를 해결할 단초가 드러난다.<sup>23)</sup> 그러므로 우리는 “원리적 직관가능성의 총체로서의 생활세계와 원리적으로 비직관적인 ‘논리적’ 구축물로서의 ‘객관적으로 참된’ 세계”(Hua VI, 130) 사이의 ‘대조’는 생활세계 이론에서 단지 감정적 규정임을 알 수 있다. 과학적 세계의 수행 결과들이 생활세계의 지평 안으로의 유입되고 수용되는 현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생활세계의 최종적 개념은 “구체적 보편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세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순수 생활세계와 보편 생활세계에 대해 탐구는 각각 어떻게 가능한가?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우선 생활세계 존재론과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생활세계는 “본래 어떠한 초월론적 관심도 없이, 그러니까 ‘자연적 태도’ 안에서” “그에 고유한 학문, 즉 생활세계 존재론의 주제”가 될 수 있다(Hua VI, 176). 다시 말해 우리는 초월론적 태도, 즉 판단중지를

22) 후설은 이미 1925년 현상학적 심리학 강의에서 이렇게 자문한다. “이론적이거나 실천적인 활동들로부터 나오는 사념들은 우리의 경험 혹은 그 경험의 의미에 의미충들이라는 옷을 입힌다(überkleiden). 단적인 바라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되는 것으로서 소여되는 것은 더 자세히 숙고하면, 그 자체에 있어 그보다 이전의 정신적 활동들(Geistestätigkeiten)의 침전물들(Niederschläge)을 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의미 침전물들에 선행하는, 사유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경험 안에서 진정으로 선이론적인 세계(vortheoretische Welt)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Hua IX, 56)

23) 이와 관련해 연구자들은 “이론적 정향을 지닌 과학에 의해 새로운 과학적 현상들이 생활세계에 정착하는 방식”이 “『위기』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Heelan, 1987, p.386 이하)라거나, “후설은 과학의 생활세계로의 이러한 ‘유입’을 아주 잘 보았지만, 역사적 지평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이와 결부된 문제들을 단지 역설들로 인식했다.”고 지적한다(Ströker, 1996, p.182).

수행한 이후에라도 “언제라도 자연적 태도를 다시 복구”하고 이 자연적 태도 안에서 “생활세계적으로 불변의 구조들에 대해” 물을 수 있다(Hua VI, 176). 다른 한편 우리가 “다시 초월론적 태도, 즉 판단중지로” 돌아간다면, “생활세계는 우리의 초월론적 철학의 맥락 안에서 단순히 초월론적 ‘현상’으로 변화한다.”(Hua VI, 177) 그러므로 초월론적 현상학은 “판단중지 내부에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이 생활세계 혹은 그 아프리오리한 본질 형식들에 수미일관하게 향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선 전환을 통해” “그 ‘사물들’ 혹은 사물형식들을 구성하는 상관자들로, 즉 소여 방식들과 그 상관적인 본질형식들의 다양체들로 향할 수도 있다.”(Hua VI, 177) 전자의 연구는 생활세계 존재론의 과제이며 후자는 초월론적 현상학의 고유한 과제이다.<sup>24)</sup>

이처럼 초월론적 현상학은 “판단중지 내부에서” “오로지 이 생활세계 혹은 그 아프리오리한 본질 형식들”에 시선을 정향하여 생활세계 존재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 이러한 생활세계 존재론은 생활세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보편 생활세계학과 순수 생활세계학으로, 다시 말해 사실적 생활세계들에 대한 학문과 생활세계 일반에 대한 형상적 학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5)</sup> 보편 생활세계는 구체적으로는 언제나 과학의 이념화에 의한 성과들이 유입되고 침전되어 계속 풍부해지는 역사적 과정의 결과로서만 존재한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보편 생활세계는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특수세계들(Sonderwelten)들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까운 생활세계들은 고향세계(Heimwelt)들로 나타나고 그 외부의 생활세계들은 낯선 세계(Fremdwelt)들로 나타난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복수의 보편 생활세계들에 대한 학문의 일환으로 가령 근대 자연과학의 수학적 이념화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근대의 생활세계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복수의 생활세계들에 대한 연구를 넘어 과학적 세

24) 서도식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생활세계의 이중성이 초월론적 현상학과 생활세계 존재론 사이의 긴장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긴장과 이에 대한 해법이 생활세계 개념을 받아들인 하버마스와 슈츠에게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한다. (서도식, 2001, p.206 이하)

25) Sowa, 2010, p.49.

계의 유입이 일어나지 않은 순수 생활세계, 즉 과학 이전이자 외부의 직관의 세계 또한 추상적으로 상징하고 그 구조를 연구할 수 있다. 이러한 순수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는 곧 생활세계가 “그 모든 상대성들 속에서도 가지는 일반적 구조”(Hua VI, 142), 즉 “생활세계의 아프리오리”(Hua VI, 143)에 대한 연구이다. “생활세계로서의 세계”가 “객관적 과학들이 ..... 아프리오리한 구조들로 전제하는 구조들과 ‘동일한’ 구조들”을 “과학 이전에도 이미” 가지기 때문이다. (Hua VI, 143) 다시 말해 이러한 순수 생활세계학은 생활세계가 “이념적이고 수학적인 점들”의 공간시간성과는 무관하게, 선험적으로 이미 공간시간적 세계라는 사실(Hua VI, 142)에 기초하여, “시간공간적인 ‘존재자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본질학”(Hua VI, 145)으로 나타난다.

이제까지 우리는 과학의 세계가 생활세계로 유입되는 현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제 이 개념을 활용하여, 자연과학 시간이 생활세계 시간으로 유입되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자.

## 2. 자연과학적 시간의 유입: 시계 시간

생활세계 안으로 유입된 과학과 기술의 성과들이 보편 생활세계의 일부로 포섭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세계 안으로 유입된 자연과학 시간은 보편 생활세계의 시간의 일부로 나타난다. 근대 이후 실천적 삶의 모든 영역, 즉 “구체적 보편성”으로서의 생활세계는 양화가능성과 정밀한 측정 가능성이라는 이념화를 거친 자연과학 시간에 의해 보편적으로 침식된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후 상론할 시계 시간이다. 자연과학 시간은 연속적이며 무한분할이 가능하고 양화 가능한 동질적 시간, 즉 시계에 의해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시간이며, 나아가 이러한 자연과학 시간이 기술적으로 구현된 시계가 근대 사회의 생활세계에 깊이 침투함에 따라 이러한 시계 시간이 보편 생활세계의 지배적 시간으로서 관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설은 생활세계 시간에 대해서는 논의하면서도, 이러한 자연과학 시간의 유입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수행하지 않는다. 후설은 생

활세계 시간과 자연과학 시간을 엄밀하게 구별하기보다는 “시계나 시간측정기를 가지고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 시간의 흐름”, “지구와 해의 관계 안에서 고정할 수 있는 세계 시간(Weltzeit)”(Hua X, 124)이라고 양자를 객관적 시간이라는 표제 하에 포괄하여 기술한다. 이제 우리는 후설 자신의 분석을 넘어서 이러한 자연과학 시간의 생활세계로의 역사적 유입을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과학적 관점에서 두드러지는, 정밀하고 객관적인 시간의 정밀한 측정과 무한성이라는 이념화된 측면들”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해석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관찰하는데, 이러한 “시간에 대한 정밀한 측정이라는 이념은 역사적으로 보아 근대 자연과학들의 태동기에 일어난 이념화에 힘입은 것이다.”<sup>26)</sup> 이처럼 “점점 높은 단계의 추상화라는 특징을 지닌, 서양의 시간 관념의 특유한 지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상은 바로 “시간 측정들과 시계들의 역사와 기술, 그리고 그들이 투입된 사회적 이용”이다.<sup>27)</sup> 이를 통해 시간에 대한 관념은 점점 추상화되고, 다양한 ‘지역 시간(Ortszeit, local time)’이라는 관념으로부터 점차 지배적인 하나의 시간이라는 관념으로 수렴한다. 이것이 정점에 이르는 것은,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관계들의 관점에서 시간에 대한 과학적 정의”를 따르면서, 시계 시간을 “표준적 준거로서 유사-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뉴턴적 사유에서처럼 흐르는 어떤 외적인 것으로서의 시간이라는 관념, 그리고 시계 시간에 어떤 식으로든 체현된 것으로서의 시간관념”이 우리의 일상적 시간 이해를 침식하고 지배한다.<sup>28)</sup>

이처럼 생활세계로 유입된 자연과학 시간, 즉 시계 시간의 최초의 결정적 특징은 양화 가능성이다. 모든 다양한 시간성들의 질적 차이를 무화하여 동질화시킴을 통해 시간의 양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나아가 이러한 양화 가능성에 기초해 무한한 가분성과 정밀한 측정 가능성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러한 양화 가능성, 무한 가분성, 정밀 측정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구현된 것

26) Lohmar, 2010, p.133.

27) Nowotny, 1992, p.426.

28) Nowotny, 1992, p.426.

이 시계이다. 시계가 생활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소급 활용”됨에 따라, 생활 세계 시간도 자연과학 시간처럼 다양한 지속양들로 분절된 존재자, 따라서 셀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존재자로 정의된다. 이처럼 생활세계 시간이 양화됨에 따라, 생활세계의 모든 실체들 역시 이러한 시간적 관점에서 양화되고 가치평가되며 나아가 시간적 관점에서 서로 조율되어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동시에적으로 수행된다.

이처럼 다양한 시간성들의 질적 차이를 무화하고 시간을 양화할 때, 시간은 시작도 끝도 중단도 없는 무한한 직선으로 나타난다. 후설은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시간세계(Zeitwelt)”로서의 생활세계를 “주기화된 세계(periodisierte Welt)로 고찰한다.”<sup>29)</sup> 선과학적인 생활세계의 실체들은 가령 해가 뜨고 지는 것, 혹은 계절의 변천에 의해 시간적으로 규제된다.<sup>30)</sup> 그러나 시계는 이처럼 주기적 혹은 순환적인 생활세계 시간을 직선적 시간으로 재조직한다. 생활세계의 일상적 실체에는 여전히 주기성이 남아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직선적인 시계 시간을 통해 재조직되며, 이제 생활세계의 삶의 흐름은 자연적인 순환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기계적 시간의 직선적이고 일률적인 분절화에 따른다.

시계 시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단일성이다. 보편 생활세계 자체가 본래 복수의 생활세계들로 나타나는데, 이에 상응하여 생활세계 시간도 복수의 시간들로 나타난다.<sup>31)</sup> 우리는 생활세계 안에서 가령 학문이나 예술에 종사하거나 군에 복무한다. 이 뿐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가정의 아버지, 시민 등등”으로서 언제나 다양한 “업(Beruf)”, 다시 말해 “관심의 태도(Interesseneinstellung)”를 취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인격적 시간 내부에서” 이러한 업들을 수행할 때, 이들은 각각 “자신의 시간”, 즉 “업시간(Berufszeit)”을 가진다(Hua VI, 139). 심지어 “현상학자의 태도” 역시 일종의 업이며, 현상학자가 수행하는 판단중지 역시 자신의 고유한 시간을 가진

29) Sowa, 2008, p.lxxvii.

30) Nowotny, 1992, p.428.

31)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된 상호-주관적 시간의 경험을 지시하는 사회적 시간”은 사회적 시간의 복수성을 고려함을 통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정의를 얻는다.”(Nowotny, 1992, p.425)

다(Hua VI, 140). 이처럼 우리는 생활세계의 다양한 업들을 수행하면서 그때그때 “그에 따라 주기화된 나의 삶 내부에서 현행적 지평”, 즉 “다른 현재”를 가지는데, 이것이 바로 나에게서는 지금의 “세계 현재”이며, 이러한 세계 현재와 관련되어 상응하는 “세계 과거” 및 세계 미래가 나타난다(Hua XXXIX, 573). 또한 이러한 개별적 인격의 차원을 넘어서, 각 공동체와 문화는 각자의 시간을 지닌다. “공동체적 삶은 나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이러저러한 공동체에 대해 태도를 취함에 따라, 각각 “상이한 공동체 현재들”이 나타나고 상이한 시간적 지평들, 가령 가족의 지평이나 민족의 지평 등이 나타난다(Hua XXXIX, 573 이하). 이러한 공시적 차원을 넘어서 통시적 차원에서도 생활세계는 상이한 시간성으로 나타난다. 생활세계가 “시간적으로도 가까운 세계(Nahwelt)와 먼 세계(Fernwelt)로 구별”됨에 따라, 생활세계 시간들도 “가까운 시간(Nahzeit)”과 “먼 시간(ferne Zeit)”으로 구별되며, 후자는 전자에 의거하여 역사적이고 세대간적(generativ)으로 구성된다(Hua XXIX, 539 이하).

그러나 자연과학 시간이 생활세계로 유입됨을 통해, 이러한 생활세계 시간은 다양성을 잃고 정밀성의 이념에 토대를 둔 시계 시간에 의해 침식된다. 시계 시간을 통해 모든 존재자, 즉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존재자는 하나의 “자연”에 귀속되고, 그들의 다양한 시간성은 “자연의 시간”으로 단일화된다. 이제 “‘자연’의 구조는 생활세계의 존재론적 구조가 되고, 이로부터 모든 사물은 자연의 시간 안에서, 공간시간(Raumzeit) 안에서 위치를 얻고 그들 중에서 비-자연적인 것(Nicht-Naturale)은 모두 이와 동일한 시간에서 거기 병합된 자신의 위치를 얻는다.”(Hua XXXIV, 576). 결국 본래적으로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존재로 정립된 하나의 무한한 객관적 시간 안에서 자연적 사물들 뿐 아니라 생명적, 신체적, 심리적 현상들을 포함해 모든 현상들이 자신의 고정된 시간 위치를 얻으며, 우리는 이러한 시간 위치를 시계를 통해 규정할 수 있다. 이처럼 “과학과 기술을 통해 변화된 시간 형식”이 생활세계의 구조의 심층을 극심하게 타격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간 형식을 담보하는 기술적 장치인 시계가 근대 이후 “생활세계적 일상의 자명한 사물”이 되었기 때문이다.<sup>32)</sup>

## V. 결론

우리는 유입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과학적 세계가 생활세계에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침전되는지를 서술했다. 선과학적이고 과학 외부의 순수 생활 세계에 대한 이념화의 결과로 나타난 과학적 세계는 유입을 통해 다시 보편 생활세계의 일부가 되고, 그 안에서 순수 생활세계와 관계를 맺게 된다.

이때 과학 이전이자 과학 외부의 순수 생활세계는 과학적 세계의 의미 토대로서 나타난다. 이는 과학적 세계가 역사적으로 생활세계로부터 나타났다는 의미이자 과학적 세계의 실천들이 여전히 생활세계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과학 및 기술의 실천의 결과들은 보편 생활세계로 유입하고 그 생활세계의 심층에 침전되어, 우리는 이를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을 활용한다. 이처럼 생활 세계는 단지 선과학적, 과학 외부의 세계일 뿐 아니라, 과학들을 포함하여 자연과 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우리 삶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세계이다.

그러나 과학적 세계의 유입의 결과, 근대에 특유한 생활세계의 망각 현상이 나타난다. 과학적 세계가 한편으로는 순수 생활세계라는 토대 위에서 있다는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 생활세계에 속한다는 사실이 간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세계의 망각의 결과, 순수 생활세계는 과학적 세계에 종속되고 후자의 단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 이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세계, 현실적으로 지각적으로 주어진 세계, 경험되고 경험 가능한 세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세계를, 수학적으로 토대를 둔 이념성들의 세계로 바꿔치기(Unterschiebung)”하였기 때문이다(Hua VI, 49).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이 본래부터 서양 문명의 위기를 진단하고 극복하려는 실천적 목표를 지녔음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이 개념이 지닌 비판적 함의를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

32) Ströker, 1996, p.175 이하. 이러한 시계의 보편적 활용은 곧 노동 세계에서 기계의 보편적 투입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기계는 시계 시간에 따라 정밀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이 기계에 복무하는 노동자 역시 이러한 시계 시간에 따라 정밀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Ströker, 1996, p.175).

가? 후설은 근대 사회의 위기, 그리고 근대 과학들의 실패의 주요 원인이 객관주의에 있음을 통찰한다. 이러한 객관주의는 바로 근대 과학들이 자신이 언제나 생활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의 수행이며 나아가 자신의 성과들이 생활세계로 다시 유입된다는 사실, 그리고 주관에 상관적인 생활세계가 자신의 의미 토대를 이룬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세계를 생활세계로부터 독립적이고 나아가 생활세계보다 더 본래적인 세계로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과학의 타당성과 발생의 토대로서의 생활세계를 통찰하여야 한다. 과학적 세계가 생활세계로 유입되어 보편 생활세계의 심층에 유입되는 현상만을 강조한다면, 지나치게 중립적이거나 낙관적인 견해가 될 것이다.<sup>33)</sup> 따라서 우리는 보편 생활세계 안에서 순수 생활세계와 유입된 과학적 세계 사이의 관계, 즉 유입된 과학적 세계가 순수 생활세계를 지배하는 현상을 통찰하고, 이러한 통찰에 기초해 순수 생활세계가 입고 있는 “이념의 옷”을 벗기고 직관적 경험 자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객관적 시간의 두 층위로서의 생활세계 시간과 자연과학 시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찰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간성 자체가 주관적 의식의 삶 뿐 아니라 생활세계 자체를 지배하는 결정적 관념이자 나아가 생활세계 자체를 조직하는 체계이자 제도라면, 이에 대한 분석과 통찰은 생활세계의 맥락에서 벗어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이 바로 생활세계로의 환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법은 현행적 생활세계, 상대적-주관적 경험 세계로의 회귀를 요구”한다. 이러한 생활세계는 “자신의 ‘객관적으로 참된 존재’에 따라 인식되어야 하고 그 인식 지평으로서 하나의 무한한 ‘객관적’ 세계, 하나의

33) 박인철은 후설의 설명이 불충분한 점을 이렇게 정리한다. 1. 급진적 성격의 기술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 후설은 유입에 있어 여과장치가 있음을 암시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해명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여과 장치는 맥락상 인간의 일상적 태도 내지 습관일 수 있겠으나, 현대인이 이미 과학과 기술의 사고방식에 젖어있다면 이 여과장치는 무의미할 것이다. 3. 유입 현상에서는 인간이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과학기술 체계가 인간 유한성을 초월한다면 인간과의 관련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박인철은 전체적으로 후설이 과학기술을 보는 시각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박인철, 2003, p.137 이하).



객관적 시간, 하나의 객관적-연속적 시간, 하나의 객관적 인과성을 얻는데.” 우리는 이러한 생활세계의 객관성이 “근대 과학과 그 객관적 진리들에게 의미를 주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Hua XXIV, 161).

이를 위해서는 생활세계에 유입되고 침전되는 자연과학 시간에 대한 전면적 부정보다는 생활세계의 복수성과 다양성에 상응하는 생활세계 시간들의 복수성과 다양성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은 달리 말해 다양한 생활세계들의 상이한 시간성들에 그에 합당한 위치를 부여하고 정당한 권리를 허용하는 일이다.

생활세계의 통일성은 구체적으로는 오로지 생활세계들의 촘촘히 얽힌 그물로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각 특수세계들에 고유하고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시간성을 회복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또 다른 연구의 과제이며 나아가 철학 뿐 아니라 여타 학문들, 특히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등의 학문들의 협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선판단들(Vorurteile)” 이전의 “이른바 아직 침묵하는 순수 경험”이 “자신의 고유한 의미에 대해 순수하게 표현”(Hua I, 77)하도록 하는 현상학의 과제, 즉 “자신의 모든 자명함들이 선판단들임을, 그리고 모든 선판단들이 전승된 침전들로부터 나온 불명료함들임을 통찰”하는 “‘철학’이라고 불리는 이념이 가지는 위대한 과제”(Hua VI, 73)이다. 이는 곧 과학적 세계의 유입과 침전을 통해 역사적으로 성립된 보편 생활세계의 “역사에 대한 해명”(Hua VI, 72), 즉 이처럼 “침전된 개념”, 즉 선판단들을 “자신의 숨겨진 역사적 의미 속에서 다시 생생하게 만드는”(Hua VI, 73) 과제이다. 그리고 이에 토대를 두고 비로소 이러한 보편 생활세계에 대한 “책임 있는 비판”(Hua VI, 73)이 가능해진다.

후설이 진단한 당대의 이러한 위기는 그로부터 여러 세대가 지난 지금까지도 극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과학적 세계의 성과들이 기술을 매개로 하여 생활세계의 심층적 구조에 더욱 깊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후설이 『위기』를 저술하기 훨씬 전인 1912년 이 “건딜 수 없게 된 이성의 위기(Notstand)”에 대해 어떻게 탄식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보자. “과학의 진보

들을 통해 우리의 통찰이라는 보물들은 풍부해지지 않았다. 과학의 진보들을 통해서 세계는 조금도 더 이해되지 않았고 다만 우리에게 더 유용해졌을 따름이다.”(Hua V, 96)

투 고 일: 2013. 05. 02.  
심사완료일: 2013. 05. 12.  
계재확정일: 2013. 05. 13.

김태희  
서울대학교

## 참고문헌

- 김태희, 「후설의 절대의식—근원의식과의 연관 하에서」, 『철학과 현상학 연구』 44집, 2010, pp.57-88.
- \_\_\_\_\_, 「초월론적 자아의 유한성: 후설의 ‘한계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40호, 2011, pp.135-166.
- 박인철, 「기술시대와 현상학—생활세계와 기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 75/1, 2003, pp.127-152.
- 서도식, 「하버마스의 사회 이론적 생활세계 개념」, 『철학』 69/1, 2001, pp.204-230.
- 이남인, 「발생적 현상학과 지향성 개념의 변화」, 『철학과 현상학 연구』 6집, 1992, pp.261-286.
- \_\_\_\_\_, 「현상학적 환원과 21세기 현상학의 전망」, 『후설과 현상학의 미래』(후설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09, pp.1-21.
- Alves, P., “Objective Time and the Experience of Time: Husserl’s Theory of Time in Light of Some Theses of A. Einstein’s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Husserl Studies* 24/3, 2008, pp.205-229.
- Biemel, W., “Zur Bedeutung von Doxa und Episteme im Umkreis der Krisis-Thematik”, *Lebenswelt und Wissenschaft in der Philosophie Edmund Husserls*, Frankfurt a. M.: Klostermann, 1979, pp.10-22.
- Brough, J., “The Emergence of an Absolute Consciousness in Husserl’s Early Writings on Time-Consciousness”, *Man and World* 5, 1972, pp.298-326.
- Carr, D., “Husserl’s Problematic Concept of the Life-World”,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7/4, 1970, pp.331-339.
- Claesges, U., “Zweideutigkeiten in Husserls Lebenswelt-Begriff”, *Perspektiven transzendentalphänomenologischer Forschung*, Den

- Haag, 1971, pp.85-101.
- Diemer, A., *Edmund Husserl: Versuch einer systematischen Darstellung seiner Phänomenologie*, Meisenheim am Glan, 1965.
- Fraser, J. T., “Human Temporality in a Nowless Universe”, *Time & Society* 1, 1992, pp.159-173.
- Gander, H.-H., *Husserl-Lexikon*, Darmstadt, 2010.
- Hall, John R., “Time and Communal Life, an Applied Phenomenology”, in: *Human Studies* 2/3, 1979, pp.247-257.
- Heelan, P. A., “Husserl’s Later Philosophy of Natural Science”, *Philosophy of Science* 54/3, 1987, pp.368-390.
- Heidegger M., *Der Begriff der Zeit*, Frankfurt a. M., 2004.
- Held, H., “Husserls neue Einführung in die Philosophie: Der Begriff der Lebenswelt”, *Lebenswelt und Wissenschaft. Studien zum Verhältnis von Phänomenologie und Wissenschaftstheorie*, Bonn, 1991, pp.79-113
- Husserl, E., (Hua I) *Cartesianische Meditationen und Pariser Vorträge*. Hrsg. von S. Strasser, Den Haag: Martinus Nijhoff, 1950.
- \_\_\_\_\_, (Hua V)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Drittes Buch: Die Phänomenologie und die Fundamente der Wissenschaften*. Hrsg. von Marly Biemel, Den Haag: Martinus Nijhoff, 1971.
- \_\_\_\_\_, (Hua VI)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Eine Einleit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Philosophie*. Hrsg. von Walter Biemel, Den Haag: Martinus Nijhoff, 1962.
- \_\_\_\_\_, (Hua IX) *Phänomenologische Psychologie. Vorlesungen Sommersemester 1925*. Hrsg. von Walter Biemel, Den Haag: Martinus Nijhoff, 1962.

- \_\_\_\_\_, (Hua X) *Zur Phänomenologie des inneren Zeitbewußtseins (1893-1917)*, Hrsg. von Rudolf Boehm, Den Haag: Martinus Nijhoff, 1966.
- \_\_\_\_\_, (Hua XI) *Analysen zur passiven Synthesis. Aus Vorlesungs-und Forschungsmanuskripten (1918-1926)*, Hrsg. von Margot Fleischer, Den Haag: Martinus Nijhoff, 1966.
- \_\_\_\_\_, (Hua XIV) *Zur Phänomenologie der Intersubjektivität. Texte aus dem Nachlass. Zweiter Teil: 1921-1928*, Hrsg. von Iso Kern, Den Haag: Martinus Nijhoff, 1973.
- \_\_\_\_\_, (Hua XV) *Zur Phänomenologie der Intersubjektivität. Texte aus dem Nachlass. Dritter Teil: 1929-1935*, Hrsg. von Iso Kern, Den Haag: Martinus Nijhoff, 1973.
- \_\_\_\_\_, (Hua XXI) *Studien zur Arithmetik und Geometrie. Texte aus dem Nachlass (1886-1901)*, Hrsg. von Ingeborg Strohmeier, Den Haag: Martinus Nijhoff, 1983.
- \_\_\_\_\_, (Hua XXIX)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Ergänzungsband. Texte aus dem Nachlass 1934-1937*, Hrsg. von R. N. Smid, Dordrecht, 1993.
- \_\_\_\_\_, (Hua XXXII) *Natur und Geist. Vorlesungen Sommersemester 1927*. Hrsg. von Michael Weiler, Dordrecht, 2001.
- \_\_\_\_\_, (Hua XXXIII) *Die ‚Bernauer Manuskripte‘ über das Zeitbewußtsein (1917/18)*, Hrsg. von Rudolf Bernet, Dieter Lohmar, Dordrecht, 2001.
- \_\_\_\_\_, (Hua XXXIV) *Zur phänomenologischen Reduktion. Texte aus dem Nachlass (1926-1935)*, Hrsg. von Sebastian Luft, Dordrecht, 2002.
- \_\_\_\_\_, (Hua XXXIX) *Die Lebenswelt. Auslegungen der vorgegebenen Welt und ihrer Konstitution. Texte aus dem Nachlass*

- (1916-1937). Hrsg. von Rochus Sowa. Dordrecht, 2008.
- \_\_\_\_\_, (Hua Mat VIII) *Späte Texte über Zeitkonstitution (1929-1934). Die C-Manuskripte*, Hrsg. von Dieter Lohmar, Dordrecht, 2006.
- \_\_\_\_\_, *Erfahrung und Urteil: Untersuchungen zur Genealogie der Logik*, Hrsg. von Ludwig Landgrebe, Hamburg: Felix Meiner, 1972.
- Lohmar, D., “On the Constitution of the Time of the World: The Emergence of Objective Time on the Ground of Subjective Time”, in: *New Contributions to Husserlian Phenomenology of Time*. Dordrecht, 2010, pp.115-136.
- Nowotny, H., “Time and Social Theory: Towards a Social Theory of Time”, *Time & Society* 1, 1992, pp.421-454.
- Schutz, A., Luckmann, T., *The Structure of the Life-World*,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3.
- Sowa R., “Einleitung des Herausgebers”, in: *Die Lebenswelt. Auslegungen der vorgegebenen Welt und ihrer Konstitution. Texte aus dem Nachlass (1916-1937)*, Dordrecht, 2008, I-LXXXII.
- Sowa R., “Husserls Idee einer nicht-empirischen Wissenschaft von der Lebenswelt”, *Husserl Studies* 26, 2010, pp.49-66.
- Ströker, E., “Lebenswelt durch Wissenschaft”, in: *Protosozilogie im Kontext: Lebenswelt und System in Philosophie und Soziologie*, Würzburg, 1996, pp.163-183.
- Waldenfels, B., “The Despised Doxa-Husserl and the Continuing Crisis of Western Reason”, *Research in Phenomenology* 12, 1982, pp.21-38.

## ABSTRACT

##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Constitution of Objective Time:

On the Basis of Edmund Husserl's Theory

Kim, Tae-Hee

In Husserl's phenomenological analyses of time, object time constituted upon subjective time-consciousness is distinguished into time of life-world and time of natural sciences. The latter constituted by idealization of the former flows back in life-world. This article investigating this phenomenon of inflow intends to solve difficulties of Husserl's theory of life-world and to accentuate critical implications of this theory. By the concept of inflow, the equivocality of life-world, i.e. the pure life-world as sensible world and the universal life-world as cultural world can be explained. Moreover, realization of crisis of modern life-world caused by inflow of natural sciences gives possibility to overcome this crisis.

**Keywords:** Husserl, Time of Life-World, Time of Natural Science, Idealization, Inflow

